

#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곽금주

문은영

오산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사춘기 남녀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의 특징인 성적인 성숙, 신체상, 자아중심성, 사회적 적응력, 우울 변인이 반사회적 행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중학교 1, 2학년에 해당하는 남자 청소년(평균 연령 13. 50세) 383명과 여자 청소년(평균 연령 13. 46세) 408명에게 성적 성숙 척도, 신체상 척도, 자아중심성 척도, 그리고 사회적 적응력(우월한 적응능력, 충동통제력, 대처능력)척도, 우울 척도와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은 더욱 많은 우울증상을 보고하였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비행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학생의 비행은 우울, 성적인 성숙, 충동통제력, 연령, 자아중심성의 주효과가 있었다. 반면 여학생의 비행은 우울, 충동통제력, 연령에 의해 주로 설명되었다. 이와 같이 남녀의 비행과 연관된 심리적인 특성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우울, 충동통제력과 연령이 비행에 영향을 주었으며 우울이 비행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차적인 관심으로 우울에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처능력, 충동통제력과 우월한 적응능력 변인이 설명력이 컸으며, 여자 청소년은 대처능력, 신체상 그리고 자아중심성 변인의 주효과가 있었다. 청소년초기에 두드러지는 비행과 우울양상이 남녀 청소년에게 달리 나타나며 그 관련변인에 차이가 있는 본 연구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해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통범죄를 제외한 청소년 범죄와 비행이 다소 감소한다고는 하나,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즉 그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또 하류계층이 아닌 중류가 정 출신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일반 중고등학교생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또 그 정도에 있어서도 과격해진 것이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 연구를 개관해보면 그

대부분이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저연령층에 비해 고교생 수준에서의 비행이 양이나 질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나 점차 어린 연령으로 비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후기,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또 반사회적행동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발달적인 특질(developmental trait)로 규정할 수 있으며(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최근 수십년 동

안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이후 청소년 후기 및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Loeber, 1982). 이외 최근 미국에서는 비행청소년의 효과적인 조기 예측을 위하여 비행 위험이 높은 아동들을 선정해 이들의 발달과정을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추적관찰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upersmidt & Coie, 1990).

비행의 근원이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Stattin & Magnusson, 1990). 즉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비행은 그 시기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또 아동 후기나 초기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은 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원인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 특히 청소년 전기, 초기, 후기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이후 시기까지 지속 또는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Patterson 등(1989)은 비행에 대한 두가지 발달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 한가지는 시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발달경로로써 부모의 강압적인 훈육 및 아동의 강압적인 행동문제가 성인기의 범죄로 계속 발전한다는 모델이다. 즉, 비행의 첫단계인 아동초기에는 부모의 강압적 훈육과 소홀한 감독으로 인해 아동의品行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品行문제를 지닌 아동은 일찍 신체적 공격이나 물리적 방법등 강제적 수단을 써서 자신의 요구나 뜻을 관철하는 것을 배우고, 이러한 강압적 문제해결 방식을 동료들에게도 적용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시간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학업성적이 뒤떨어지게 된다. 즉 아동 중기인 두번째 단계에서는 또래집단의 배척과 학습부진과 같은 학교에서의 실패로 인해 우

울한 기분과 비행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일탈집단에 어울리기 쉽고 따라서 세번째 단계인 아동후기와 청소년기에는 만성적인 비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가지는 청소년의 시기적인 특징에 의해 유발된 비행경로이다. 청소년기의 신체변화가 가족관계의 변화들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한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비행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기제는 상이하다는 것이 Patterson 등 (1989)의 이론적인 제안이다.

즉 비행을 보다 빨리 시작한 청소년들(early starters)은 더 어린 시기부터 반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 것이며,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모델에 적합하다. 즉 이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범법행위를 시작하는 경우(late starters)는 아동기의 강압적인 행동이나 부모 양육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른 시작자(early starters)와는 달리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비행청소년 및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으로 앞의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부모와의 결속도, 양육태도, 가족간의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 이혼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 또는 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곽금주 등, 1993). 그러나 이러한 변인의 대부분은 아동기 때부터 지속되는 만성적 비행을 설명하는데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때 급증하게 되는 비행은 이러한 요인외에 사춘기 시기의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제안은 반사회적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절반이 청소년기 비행을 하게 되며, 또 이들 중 3/4이 성인범죄자가 된다는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Blumstein, Cohen, & Farrington, 1988). 한편 청소년기 후기 부터 20대 후반까

지 비행자의 많은 숫자가 비행집단에서 탈락하는데 이들은 아마도 청소년기 때인 늦게 비행을 시작한 자(late starters)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요인으로 비행이 시작되어 어떤 요인으로 비행 집단에서 탈락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 부모의 훈육보다는 교우간의 강압적인 행동변인이 더 설명력이 크게 나온 것(권정혜, 김수현, 이봉건, 1992)은 이런 시작자와 늦은 시작자를 구분하지 않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급증하게 되는 비행은 청소년기라는 발달적인 전환시기에 겪게 되는 여러 심리적인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더우기 이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밝히게 되면 그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좀 더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청소년기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게 하며,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성적 성숙발달이 또래에 비해 빠르거나 느리게 되면 이것은 주요 심리적 결과를 낳게 된다.(Tobin-Richards, Boxer, & Petersen, 1983). 특히 이 시기의 성적 성숙은 개인마다 그 수준 차이가 크며, 느린성숙자(만숙아)에 비해 빠른 성숙자(조숙아)가 심리적 적응문제가 더 많고 정서상태가 부정적이었다(Petersen & Crockett, 1985). 이러한 성적성숙이 미치는 영향은 남, 여에 따라 각기 다른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관적이지 않으나,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숙이 빠른 사람이 더 많은 긴장을 나타내며(Richards & Larson, 1993) 또 조숙아가 더 많은 비행을 하였다(Duncan, Ritter, Dornbusch, Gross, & Carlsmith, 1985).

이와 같이 사춘기 시기에는 신체 성적 발달이

현저하며 또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성적 성숙과 함께 신체상(body image)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설명하고 또 이것이 비행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들이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숙이 느린자에 비해 빠른자가 긍정적인 신체상을 지니고 있었다(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1991; Duncan et al, 1985).

한편 청소년기의 인지발달단계에서만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 자아중심성 개념이 있다. 이것은 인지구조가 자기의식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는 특수한 현상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지적 기능을 사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새로 획득한 기능을 사용하는 등 인지구조 발달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발달적 퇴행과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

Elkind(1974)는 청소년기에 획득하기 시작하는 형식조작적 사고기능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나타나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로 구분하였다. '상상의 청중(Imaginary Audience)'개념은 청소년기에 획득하는 형식조작적 사고기능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사고방식을 개념화하듯이 타인들의 사고도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이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듯이 다른사람도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기며,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된다. 여기서의 '그 누구'가 '상상의 청중'이다.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인데, 청소년

년은 감수성이 예민해져 자기의 감정에 대해 지나치게 변별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자아중심성을 비행집단과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들에 의하면, 비행청소년들이 더 높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윤진, 김인경, 김길청, 1989; Chandler, 1973). 또 청소년의 음주운전이나 임신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자아중심성 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었는데, 타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는 특별한 존재로, 음주운전을 하여도 위험하지 않으며, 또 성관계를 하여도 임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비행을 한다(Arnett, 1990). 자아중심성의 두가지 구인 중 특히 상상의 청중 개념이 일반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에서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도 있다(Anolik, 1981). 또 이것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자 청소년에게서는 자아중심성이 높을수록 환경의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Dolcini, 1989). 따라서 자아중심적 사고가 남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다.

사춘기 때에 급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주요 현상으로 우울을 들 수 있다. 기분이 울적하다는지,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하는 감정은 10세 정도의 아동기에도 경험되고 있으나 그 빈도는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성인의 우울증과 비교해 청소년 우울증은 '위장된 우울증(masked depression)'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된다. Cytrn과 Mcknew(1972)는 반사회적 행동을 위장된 우울의 하나로 규정하고, 우울과 행동장애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외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은 불안, 반항, 사회적 행동, 비행, 학교생활간의 문제, 학습의 어려움, 과활동성, 공격적 행동, 신체적 고통등의 외적인 다른 형태의 문제들로 표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Chiles, Miller, Cox, & 1980). 또 청소년 우울

증 환자의 20~30%가 문제행동을 하며(Craighead, 1991), 또 비행청소년 집단 중 23%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Chiles et al, 1980). 이외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밝히려고 한 연구도 있다(김정원, 1992). 따라서 사춘기에 급증하는 우울이 마찬가지로 사춘기에 증가하는 비행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비행을 예측할때 다른 변인에 비해 그 상대적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 초기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이 시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된다는 점을 규명하고, 특히 성적 성숙, 신체상, 인지적 특징, 이외 개개인이 지닌 사회적 적응능력(대처능력, 충동통제력, 우월한 조절능력) 그리고 우울 현상이 반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대부분의 비행연구들이 남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남녀의 성차이에 따른 차이점 또한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성적성숙과 신체상간의 상관과 이들과 비행간의 상관관계를, 자아중심적 사고와 반사회적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외 사회적 적응능력인 충동통제력, 대처능력 및 우월한 조절능력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피험자

서울 H, S 중학교와 H여중 1, 2학년 학생들 중 16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남자 383명(평균연령: 13.50세), 여자 408명(평균연령: 13.46세), 모두 791명이 최종분석 대상이었다.

### 측정도구

#### 1. 성적 성숙

이차 성특징의 성숙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사춘기 발달척도(Petersen, Crockett, Richards, & Boxer, 1988)에 근거하여 제작된 측정도구(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1991)에서 남녀 문항수를 일치시켜 사용하였다. 즉 겨드랑이 털, 여드름, 음모 외에 남자는 콧수염이나 턱수염, 변성을 측정하였고, 여자는 유방과 월경 유무에 관해 측정하였다. 각기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성숙정도가 있으며, 최저 5점에서 최고 15점까지 있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65였다.

2. 신체상(body image)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신체와 신체발달 상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9개 문항을 사용했다. 이것은 한국판으로 번안된(이춘재 등, 1991)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 Jarcho(1984)의 SIQYA(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중 신체상 척도이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1이다.

3. 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의 두가지 구인 중 '상상의 청중'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판 상상의 청중 척도(New Imaginary Audience Scale : NIAS)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최근 연구(Lapsley, Fitzgerald, Rice, & Jackson, 1989)에서 사용한 척도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비교적 가중치 값이 낮은 문항을 제외한 단축판이다(장근영, 1992). 특정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상상하는 빈도를 묻는 21개 문항이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4. 사회적 적응력

사회적 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판으로 번안된(이춘재 등, 1991) Petersen 등 (1984)의 SIQYA(Self - 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중 그 일부를 사용하였다. SIQYA란 청소년기의 여러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중 일반적인 적응능력을 설명하는 우월한 적응능력(superior adjustment), 충동 통제력(impulse control), 대처능력(mastery and coping)을 측정하였다. 각 척도는 '자신과 매우 비슷하다'에서 '자신과 전혀 다르다'의 6점척도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우월한 적응능력 척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는 주변상황의 조절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이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9이다. 대처능력 척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와 장래의 예상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8이다. 충동 통제력 척도는 분노나 다른 충동적인 감정 및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한다고 느끼는 것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57이다.

5.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Scale : Revised CES-D-K)'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1). Noh, Avison 및 Kasper(1991)가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다의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을 첨가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를 중심으로 '역학연구-우울 척도 : 청소년용'에 부가된 2개 문항을 더하여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연구된 바 있다(김정민, 1992). 이 척도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 6.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이란 사회학자들이 사용한 '숨은 비행' 개념과 유사하나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만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닌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곽금주 등, 1993). 이 행동을 측정

들의 평균을 각 문항의 최고점수인 5에서 백 값을 가중치로 계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3이다.

## 결 과

성적 성숙, 신체상, 자아중심성(상상의 청중), 사회적 적응력(대처능력, 충동통제력, 우월한 적응능력), 우울, 반사회적 행동 변인에 관한 남녀의 성차에 따른 결과는 표1과 같다.

표 1. 각 주요 반응에 대한 남녀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남	여	F
성적 성숙	8.69( 1.92)	9.82( 1.76)	72.36**
신체상	36.85( 7.73)	33.24( 6.65)	47.29**
상상의 청중	52.47(10.87)	54.89( 9.13)	10.78*
우월한 적응능력	38.73( 7.17)	37.86( 7.63)	2.67
충동통제력	26.96( 6.48)	27.41( 5.89)	.97
대처능력	40.69( 7.09)	39.79( 7.55)	2.87
우울	24.30( 9.83)	27.77(11.67)	19.00**
반사회적 행동	237.51(65.49)	226.27(44.09)	6.36*

\*  $p < .01$     \*\*  $p < .001$

하기 위하여 곽금주와 김하연(1991)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을 수정보완시켜서 기존의 25개 문항에서 4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국민학교 4, 5학년 아동,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약 8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분 또래들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쓰게 하였다. 이와같은 자유반응을 분석하여 가장 빈도가 높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타당한 문항을 선별하여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문항 48개를 만들었다. 빈도를 고려한 등간척도의 수준에서 측정하고자 반응을 '없다'에서 '많다'까지 1점에서 5점을 주어 점수화하였다. 이때 각 문항의 행동빈도가 각기 다를 수 있고, 그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학생

표 1에서 보듯이 성적인 성숙, 신체상, 상상의 청중, 우울,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에 비해 여자의 성적인 성숙이 유의미하게 빨랐으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인 신체상에서는 남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의 청중 차원으로 측정된 자아중심성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우울한 경향을 보였고, 반사회적 행동은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유의미하게 더 많이 하였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서 각 변인들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연령, 성적성숙, 상상의 청중, 우울 변인이 정적 상관을 보였고 충동

통제력 변인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연령이 높고, 성적으로 성숙하고, 자아중심적 사고를 지닐수록 그리고 우울증상이 높고 충동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와같은 관련변인이 반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전체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

**표 2. 각 변인들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상관**

	2	3	4	5	6	7	8	9	10
1. 연령	.07	.27**	-.04	.09	-.08	.01	-.09	.07	.20**
2. 성별		.27**	-.23**	.11**	-.10	.01	-.07	.17**	-.08
3. 성적성숙			.09	.18**	-.03	.06	.06	.07	.17**
4. 신체상				.06	.42**	.30**	.39**	-.33**	.02
5. 상상의 청중					.17**	-.07	.28**	.15**	.17**
6. 대처능력						.24**	.63**	-.43**	-.02
7. 충동통제력							.18**	-.24**	-.26**
8. 우월한 적응능력								-.34**	-.01
9. 우울									.22**
10. 반사회적 행동									--

\*  $p < .01$     \*\*  $p < .001$

**표 3.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인	R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남녀 전체				
우울	.2512	.0631	.0613	35.2226*
연령	.3090	.0955	.0920	27.5578*
충동통제력	.3588	.1287	.1237	25.6601*
성차	.3842	.1476	.1410	22.5103*
성적 성숙	.4073	.1659	.1578	20.6425*
상상의 청중	.4197	.1762	.1666	18.4630*
남자				
우울	.2806	.0787	.0754	23.6654*
성적성숙	.3546	.1258	.1194	19.8518*
충동통제력	.3853	.1485	.1392	15.9818*
연령	.4038	.1631	.1508	13.3453*
상상의 청중	.4187	.1753	.1602	11.6074*
여자				
우울	.2885	.0832	.0795	22.1468*
충동통제력	.3569	.1274	.1202	17.7325*
연령	.4079	.1663	.1560	16.0958*

\*  $p < .0001$

로 우울, 연령, 충동통제력, 성차, 성적성숙, 상상의 청중 변인이 설명력이 컸다. 남녀의 성차에 따른 변인의 효과를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하여 남학생, 여학생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우울, 성적성숙, 충동통제력, 연령, 상상의 청중 변인이 남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이었다. 여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에는 우울, 충동통제력, 연령이 주효과가 큰 변인이었다.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변인은

주요한 변인으로써 남학생의 경우는 충동통제력, 우월한 적응능력 변인이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신체상, 상상의 청중이었다. 이와 같이 남,녀의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변인이 차이가 있으며, 특히 남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인 상상의 청중개념이 여학생의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이었다.

반사회적 행동의 하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 따로 요인분석을 하여 이런 하위비행유형에 따라 영향을 주는 변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기

표 4. 우울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인	R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남녀 전체				
대처능력	.4221	.1782	.1768	129.6456*
상상의 청중	.4761	.2267	.2241	87.4896*
신체상	.5103	.2601	.2567	69.9629*
우월한 적응능력	.5225	.2730	.2681	55.8635*
성차	.5285	.2794	.2733	46.0502*
충동통제력	.5344	.2856	.2784	39.5074*
남자				
대처능력	.3810	.1452	.1420	46.0230*
충동통제력	.4366	.1907	.1847	31.8010*
상상의 청중	.4636	.2149	.2062	24.5451*
우월한 적응능력	.4877	.2379	.2265	20.9113*
여자				
대처능력	.4410	.1945	.1920	78.4548*
신체상	.5080	.2580	.2534	56.3354*
상상의 청중	.5498	.3023	.2958	46.6473*

\*  $p < .0001$

우울변인이다. 따라서 우울이 청소년기의 다른 심리적 특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있다. 남녀 모두 대처능력이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이었으나, 그 다음으로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반사회적 행동의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으로 하였고 산출된 요인에 대해 Varimax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여섯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번째 요인으로는 다방 카페출입, 당구장출



입, 노래방출입, 호프집출입, 나이트 록카페 출입, 음주, 흡연, 심한 폭행, 패싸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를 '유흥업소출입 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 두번째 요인으로는 야한 옷차림, 가출, 환각제 부탄가스 흡입경험, 음란전화, 요란한 몸치장, 파마 염색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물질남용 및 외모관련 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 세번째 요인은 거짓말하기, 욕하기, 장난전화, 속이나 은어사

용, 오락실출입, 만화가게 출입, 컨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소한 문제행동군'이라고 하였다. 네번째 요인은 성폭행, 동거경험, 사창가출입, 성관계경험 등에 높은 요인 부하를 보여 '성관련 비행군'으로 해석하였다. 다섯번째 요인은 마약, 대마초 흡입, 디스코장 출입, 외박 경험 등으로 이루어져 '자기파괴적 비행군'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여섯번째 요인으로는 어른에 대들기, 불지르기,

**표 5. 남학생의 하위 비행요인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인	R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b>유흥업소출입비행군</b>				
성적성숙	.2253	.0508	.0475	15.6148**
우울	.3154	.0995	.0933	16.0680**
충동통제력	.3525	.1243	.1152	13.7186**
연령	.3739	.1398	.1279	11.7387**
<b>물질남용 및 외모관련비행군</b>				
우울	.2651	.0703	.0670	21.6866**
성적성숙	.3280	.1076	.1013	17.2345**
<b>사소한 문제행동군</b>				
충동통제력	.3160	.0999	.0967	32.1661**
성적성숙	.3809	.1451	.1392	24.5234**
우울	.4177	.1745	.1659	20.2902**
연령	.4350	.1892	.1779	16.7446**
<b>성관련비행군</b>				
성적성숙	.1570	.0247	.0213	7.2558*
우울	.2082	.0433	.0367	6.4777*
<b>자기파괴적 비행군</b>				
성적성숙	.1584	.0251	.0217	7.5114*
<b>파괴적 비행군</b>				
우울	.2337	.0546	.0514	16.8696**
성적성숙	.2799	.0783	.0720	12.3679**
충동통제력	.3123	.0975	.0882	10.4446**

\*  $p < .01$  \*\*  $p < .001$

흥기소지 등으로써 '파괴적 비행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하위 반사회적 행동들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각기 달랐으나 주로 우울한 기분과 성적 성숙이 주요한 변인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이 여덟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번째 요인은 속어나 은어사용, 거짓말하기, 어른에 대들기, 욕하기, 오락실출입, 만화가게 출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사소한 문제행동군'이라고 해석하였다. 두번째 요인은 흡연, 음주, 낚시, 다방이나 카페출입, 노래방출입, 술집출입, 나이트 록카페 출입 등 유흥

업소출입이 주가 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흥업소출입 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 세번째 요인에는 당구장출입, 디스코장 출입, 패싸움, 심한 폭행, 가출, 사창가 출입 등 불량교우와 집단적으로 하는 비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집단적 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 네번째 요인은 남의 집 침입, 물건훔치기, 방화, 기물파손, 돈유용, 돈뺏기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파괴적 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 다섯번째 요인은 환각제나 부탄가스 흡입, 사람희롱 등으로 '물질남용 비행군'으로 여섯번째 요인은 동거경험, 성관계경험, 야한 옷차림,

표 6. 여학생의 하위 비행요인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인	R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사소한 문제행동군				
우울	.2936	.0862	.0834	30.7516**
충동통제력	.3700	.1369	.1316	25.7774**
연령	.4113	.1692	.1615	21.9943**
유흥업소출입비행군				
우울	.2500	.0625	.0596	21.8006**
연령	.3155	.0995	.0940	18.0142**
충동통제력	.3633	.1320	.1240	16.4711**
집단적 비행군				
우울	.2082	.0433	.0404	14.7675**
파괴적 비행군				
우울	.1484	.0220	.0190	7.3203*
자기파괴적 비행군				
우울	.1820	.0331	.0302	11.2021**
충동통제력	.2172	.0472	.0413	8.0723**
연령	.2457	.0604	.0517	6.9622**
학교이탈비행군				
충동통제력	.1750	.0306	.0276	10.2332*

\*  $p < .01$  \*\*  $p < .001$

음란전화 등 '성관련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 일곱번째 요인은 음란비디오, 무단결석, 외박 등 '자기파괴적 비행군'으로, 마지막 요인에는 흥기소지, 수업태만, 불량교우와 접촉, 파마 염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학교이탈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

여학생의 이러한 비행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은 하위 유형에 따라 각기 달랐으나 이중 우울과 충동통제력이 주요한 변인이었다.

## 논 의

본 연구 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또 사춘기 때의 우울증상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련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사춘기 때의 가장 현저한 변화인 성적인 성숙에 있어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성적성숙이 유의미하게 더 빨랐다. 이것은 만 13세의 연령에서 여학생이 성적으로 더 빠른 성숙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학생과는 달리 남학생의 경우 성적 성숙과 연령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학교 1, 2학년간의 비교적 적은 연령차이였으나 연령이 많을수록 성적성숙이 더 빨랐으며, 특히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의 경우 연령 및 성적성숙과 반사회적 행동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성적성숙이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가 연령 변인보다 더 컸다. 즉 남학생의 경우 성적성숙이 더 잘 이루어진 청소년일수록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연령보다 성적 성숙이 심리적 장애에 더 큰 결정요인이라는 Richards & Larson(1993)의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여학생에서는 성적성숙과는 무관하게 연령 변인이 반사회적 행동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이

것은 사춘기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 성적 성숙이 더 높은 긴장(tension)을 유발하여 부적응 행동을 예언한다는 Richards & Larson(1993)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성적성숙에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앞으로 추후연구들이 이루어져야겠다.

또 성적성숙과 신체상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학생들에게서는 성적성숙과 신체에 대한 만족도간에는 관계가 없으나 남자에게서는 상관이 있었다. 이는 이춘재 등(1991)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나, 그 해석이 어렵다. 다만 여학생의 성숙정도가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이미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여학생이 이차성 특징 발달이 이미 이루어져, 본 측정문항으로는 그 차이가 변별되지 못했을런지 모른다. 또다른 가능성은 성적성숙 발달과 또 이로 인한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여자에 비해서 남자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여학생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과는 상관이 없으나, 우울에는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해석되는 변인으로는 자아중심성이 있다. 상상의 청중 개념으로 측정된 자아중심성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았는데,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다른사람이나 자신을 생각하는 정도에 관한 자의식이나 이에 해당하는 상상의 청중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연구결과들(Elkind & Bowen, 1979; Enright, Shukla, & Lapsley, 1980)과 일치된다. 그러나 자아중심성이 남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주요 변인인 반면, 여학생에게서는 우울을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큰 변인인 것으로 보아 남학생의 반사회적 행동과 여학생의 우울증상에 관해 좀 더 깊은 고찰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사춘기 때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우울을 나타내나,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 녀의 성차이에 대해 여자는 수동적 성향(passive orientation), 남자는 능동적 성향(active orientation)을 지니고 있다는 고전적 정신분석학자들의 견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Freud와 Erikson에 의하면 여자는 내부적 성향(internalized orientation)을, 남자는 외부적 성향(externalized orientation)으로 인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공격본능을 표출하기가 더 어려우며, 억제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와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여자는 내부화된 방어(internalized defense), 남자는 외부화된 방어(externalized defense)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Brody, Rozek, & Muten, 1985). 이런 내부적-외부적 차원을 14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은 공격적인 외부로 향한 방어(aggression-outward defense)를, 여자 청소년은 자신을 향해 내부화된 방어(turning against the self)를 더 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t, 1991).

따라서 이러한 남, 녀의 차이를 본 연구결과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청소년기 때 증가하는 심리적 갈등이 여학생의 경우 내부로 표출되어 우울이 더 높는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는 외부로 향해 표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울과 비행은 같은 차원의 양극단으로 단정짓기에는 더 많은 연구들이 요구되며, 이와같은 남녀의 차이를 좀더 규명할 수 있는 심리적 매개변인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공격적인 아동과 우울 아동간의 인지적 사고과정 패턴이 유사하다는 연구결과(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도 있는데,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간의 기저변인들을 밝히는 것 또한 후속연구의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나 아동기후기와 청소년기 후기를 포함하여, 발달적 변화 및 그 시기에 따른 설명요인을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있어야겠다.

또 청소년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와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만 불법이 아닌 반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문항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이 하는 비행의 하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들에게서 6요인, 여학생에게는 8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하위 비행유형을 설명하는데 각기 예측변인이 달랐고 또 남녀에 따라서도 서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요인의 항목 중 다소 무리하게 묶이는 문항 또한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을 좀 더 분명히 하고 또 요인의 해석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척도를 사용한 후속연구들이 실시되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 김하연(1991).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사회 정보처리과정간의 관계(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45-156.
- 곽금주, 윤진, 문은영(1993). 한국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27.
- 권정혜, 이봉건, 김수현(1992). 부모양육변인들과 교우관계 변인들이 초기의 숨은 비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 김정민(1992).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1992).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김인경, 김길청(1989). 청소년비행과 자아중심성 발달과의 관계. *형사정책* 4호, 67-96.
-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 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4(1), 89-102.
- 장근영(1992). 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olik, S. A.(1981).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nd perceptions of parents among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6), 443-454.
- Arnett, J.(1990). Contraceptive use, sensation seeking, and adolescent egocentr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2), 171-180.
- Blumstein, A., Cohen, J., & Farrington, D. (1988). *Criminology*, 26, 1-35.
-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 (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 Craighead, W. E.(1991). Cognitive factors and classification issu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311-326.
- Cytrn, L., & Mcknew, D. H.(1974).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ing clinical expression of the depressive process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1(8), 879-881.
- Dolcini, M. M., Cohn, L. D., Adler, N. E., Milstein, S. G., Irwin, C. E., Kegeles, S. M., & Stone, G. C.(1989). Adolescent egocentrism and feelings of invulnerability : Are they related?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4), 409-418.
- Duncan, P. D., Ritter, P. L., Dornbusch, S. M., Gross, R. T., & Carlsmith, J. M. (1985). The effects of pubertal timing on body image, school behavior, and devi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227-235.
- Elkind, D., & Bowen, R.(1979). Imaginary audienc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3-44.
- Enright, R., Shukla, D., & Lapsley, D.(1980). Adolescents egocentrism-sociocentrism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01-116.
- Kupersmidt, J. B., & Coie, J. D.(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psley, D. K., Fitzgerald, D. P., Rice, K. C., & Jackson, S. (1989). Separation-individuation the "new look" at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Toward a general model of adolescence ego development.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 Interactive approaches*. N. Y. : Springer.
- Levit, D. B.(1991). Gender differences in ego defenses in adolescence : Sex roles as one wa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992-999.

- Loeber, R.(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Noh, S., Avison, W., & Kasper, V.(1992).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 84-91.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etersen, A. C., & Crockett, L. J.(1985). Pubertal timing and grade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91-206.
- Petersen, A. C., Crockett, L. J., Richards, M., & Boxer, A.(1988). A self- respect measure of pubertal status : Reliability, validity, and initial nor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2), 122-144.
-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 Jarcho, H.(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IQYA) :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93-111.
- Richards, M. H. & Larson, R.(1992). Pubertal development and the daily subjective states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2), 145-169.
-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 Academic Press.
- Quiggle, N. L., Gaber, J., Panak, G. W. & Dodge, K. A.(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ion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The Relationship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Keum-Joo Kwak

Eun-Young Mun

Osan Colleg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pubertal timing, body image, egocentrism, social adaptatio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The subjects were 383 boys (mean age : 13.50) and girls (mean age : 13.46) in first and second grade students of middle school. They were administered with the following six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 pubertal timing, body image, imaginary audience, social adaptation (mastery and copying, impulse control, superior adjustment),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Results indicated that boys scored higher on antisocial behavior and girls scored higher on depression. In boys, depression, pubertal timing, impulse control, age, egocentrism were related to the antisocial behavior. In girls, depression, impulse control, age were correlated with the antisocial behavior. In both genders, depression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antisocial behavior. The correlated variables of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were different in each other sexe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nd its implication and following study were suggested.